

# 한국농업분야 국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 숙 현  
KOICA 농어촌개발팀

## 1.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 가. 개 관

한국은 수원국(1945-1955)에서 공여국(1991-현재)으로 전환된 국제원조사회의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써, 이러한 특수한 발전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사레인 동시에 공여국들에게도 귀중한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는 총 127억 달러(USD 12.7billion)규모에 이르며, 지원형태도 긴급구호, 잉여 농산물원조, 개발차관, 개발중여, 기술 협력 등 유/무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발전

해 왔다. 1995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2건의 차관을 끝으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수원 역사를 졸업하게 되고 '87년 유상원조전담으로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창설, '91년 무상원조 전담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공여국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 나. 한국 농업분야 국제협력

전쟁으로 기초 인프라 시설이 파괴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조대상 분야는 농업부문이었으며, 절대다수의 인구가 농업부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의 회복과 향상은 가장 기본적인 발전과제

표 1 우리나라 수원의 시대적 분류<sup>1)</sup>

구 분	긴급구호원조기 (1945~1953)	본격적인 원조기 (1953~1961)	차관전환기 (1962~)
성 격	긴급구호원조	경제안정과 방위력 강화	차관중심의 경제원조
원조형태	기술협력, 전시 긴급원조 등	방위지원원조 (계획원조 및 비계획원조), 잉여 농산물원조 등	1957년 정점으로 무상원조 감소 및 1959년말부터 유상 원조로 대체
주요상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로부터 원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야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 등	연평균 4.9% 경제성장 연평균 투자율 11.8% 투자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제정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적극적 외자도입 활성화

1)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 사례등에 관한 조사연구/이경우, 2004. 3)

였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1960년 각각 총 수원액의 64%, 40%이상을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1960-70년대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개별 원조국가뿐만 아니라, 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FP(World Food Program)등으로 부터 다양한 식량원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다. 최근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세 및 동향**

한국의 개발역사에서 경험하였듯이 농업분야는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발과제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한 산업구조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농업/수산업/임업 등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1\$이하 최빈곤계층(현재 전세계 약 10억명)의 대다수인 7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50~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농업분야의 중요성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기존 타 분야로 원조가 집중되는 경향에서 2008년 최근 식량안보위기, 국제경제 불황 등으로 취약한 빈곤계층과 농업분야 지원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미국, 독일 등 동 분야로 농업분야 지원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2)</sup>.

표 2 소득 그룹별<sup>3)</sup> 농촌 거주인구 현황

최빈국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
74.8	69.2	55.4	26.2

2) <http://www.un.org/esa/sustdev/publications/trends2006/>  
 3) OECD: [http://www.oecd.org/searchResult/0,3400,en\\_2649\\_33721\\_1\\_1\\_1\\_1,100.html](http://www.oecd.org/searchResult/0,3400,en_2649_33721_1_1_1_1,100.html)  
 - LDC (최빈개도국) : 1인당 GNI가 3년간 평균치가 750불 미만으로, 인적자원 부족 및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 선정하며, '08년 현재 49개 국가  
 - OLIC (기타저소득국) : 1인당 GNI가 \$935 미만인 국가 (2007년 기준)로, 현재 12개 국가  
 - LMIC (중하위소득국) : 1인당 GNI가 \$936-\$3,705(2007년 기준)로, 현재 47개 국가  
 - UMIC (중상위소득국) : 1인당 GNI가 \$3,706-\$11,455(2007년 기준)로, 현재 43개 국가.

**2. KOICA 사업에 대한 이해(무상원조사업)**

**가. KOICA 개관**

'91년 무상원조 사업전담기관인 KOICA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중점 분야(농촌개발,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환경여성, 정보통신, 산업에너지)를 중심으로 연수생초청, 개발조사,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파견, 봉사단 파견, NGO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년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예산규모는 한국의 원조사업 증가추세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나. KOICA 농어촌개발 현황**

KOICA의 농어촌개발분야는 전체 예산의 평균 약 6%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순위는 4위에 해당한다('07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주요 대상국은 아시아지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남미지역에서는 과테말라, 에콰도르, 아프리카지역은 세네갈, 탄자니아, 모로코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형태는 프로젝트와 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순이 가장 많았으며,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 연구 및 기술강화, 농업정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시장성 접근성 개선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KOICA의 사업추진 절차와 참여 방법**

**가. 사업추진 절차**

농어촌개발분야 사업구성은 주로 인프라건축, 전문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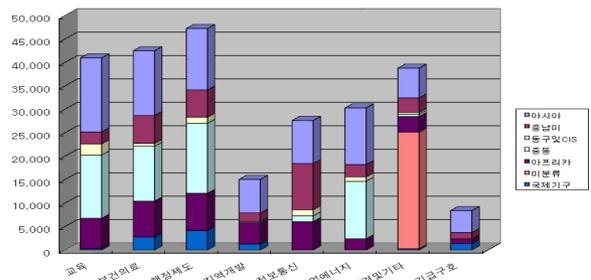


그림 1 KOICA 분야별 지역별 총괄

표 3 '00-'07년 KOICA무상원조 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공적개발원조(ODA)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69.0
① 양자간 협력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528.4
• 무상원조 (KOICA)	47.8 (43.8)	53.0 (47.7)	66.7 (59.9)	145.5 (122.3)	212.1 (175.5)	318.0 (200.8)	259.0 (192.1)	361.28 (270.0)
• 유상원조(EDCF)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67.1
② 다자간 협력	80.9	93.1	72.0	120.7	92.6	289.0	79.2	205.5
ODA/GN(%)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

견, 기자재 지원, 연수생초청 등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각 자격여건, 참여방식, 적용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사업요청서 검토 시에는 해당분야 유관기관에 검토의뢰하게 되며,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일정, 요건 등을 협의 후 현지조사를 가게 된다. 이때 KOICA홈페이지의 분야별 전문가 풀 제도에 등록이 된 전문가위주로 선별 하게 되며, 등록된 전문가목록은 농어촌 개발팀의 심사를 거쳐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은 매년 사업심의회를 거쳐 추진사업여부가 결정되며,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세부 사업내용 확정 및 정부간 합의문교환을 위한 2차 현장조사를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 부분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형성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함께 가는 전문가의 소속기관이 국내유일의 기관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본사업에 응찰 할 수 없다. 본 사업을 시행할 업체선정절차는

KOICA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참가자격, 요구서류, 업무범위 등의 내역을 게시 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구제세부내용, 범위,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후 세부 추진하게 된다.

나. 전문가 및 참여인력 자격·요구 조건

KOICA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대상지가 해외 개발도상국이며, 업무협업의 대상도 상대국의 공무원, 기술자, 주민 등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여러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 전문가 및 사업 참여인력으로서 특히 요구되는 조건은 첫째, 농업분야에 관한 폭 넓은 전문지식이다.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함께 농업개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사업이 KOICA사업이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의 농촌분야 주요 이슈(새마을운동, 관개사업 역사 등)등도 섭렵하고 자신의 세부전문분야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역 지식이다. 대부분의 인력이 국내에 대한 정보, 체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이 실시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련분야 현황, 목표, 리스크 관리 등을 사업참여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을 무상으로 한국이 돕는데 대한 기본 취지와 내용, 역사적인 관계 등을 잘 이해하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개발학은 종합 사회과학으로 불릴 만큼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른” 문화, 관련분야 제도, 관행 등을 이해하고 사업에 연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는 어학능력(영어 및 현지어)이다. 가끔 통역을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그림 2 사업추진 절차

첨부: 2008년도 농촌개발추진사업 및 2009년도 신규사업 리스트(예정)

국 가	사 업 명	구 분
라 오 스	관개수로 건설(폰홍군) ('08-'09/170만불)	계속
라 오 스	관개수로 건설(문군) ('08-'10/320만불)	계속
몽 골	채소재배 온실 설치지원 ('08-'09/140만불)	계속
몽 골	할호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08-'09/255만불)	계속
미 얀 마	농업관계기술 교육훈련 역량강화 ('08-'10/200만불)	계속
세 네 갈	다가나지역 농업생산성 개선 ('07-'09/150만불)	계속
세 네 갈	해수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술협력 ('08-'09/160만불)	계속
세 네 갈	포도르 지역 관개 재개발 ('08-'10/180만불)	계속
알 제 리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07-'09/180만불)	계속
알 제 리	새우양식장건설 및 양식기술 이전 ('08-'10/230만불)	계속
짐 바 브 웨	농기계 시험평가센터 개선 ('08-'10/300만불)	계속
탄 자 니 아	잔지바르주 관개시설 재건 및 모로고로 농업 기계화 ('07-'09/170만불)	계속
튀 니 지	패류 양식 기술 지원 ('08-'10/160만불)	계속
에 콰 도 르	침보라스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08-'10/250만불)	계속
엘 살 바 도 르	중부지역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200만불)	계속
온 두 라 스	농업기술훈련원 현대화 사업 ('08-'10/140만불)	계속
우즈 베 키 스 탄	콩팜종관리 기술지원사업 ('09/30만불)	신규
몽 골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08-'10/165.7만불)	계속
나 이 지 리 아	4개 지역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07-'09/160만불)	계속
나 이 지 리 아	미곡처리기술지원 ('08-'09/180만불)	계속
탄 자 니 아	농산물가공 훈련센터 건립 및 기술지원 ('08-'10/300만불)	계속
탄 자 니 아	잔지바르주 농산물가공 훈련센터 건립 및 기술 지원 ('08-'09/230만불)	계속
미 얀 마	흘레구 지역 농업 및 농촌개발 ('08-'10/200만불)	계속
방 글 라 데 시	꾸밀라지역 농촌 종합개발 ('07-'10/350만불)	계속
과 테 말 라	난민 정착지원 및 교육강화 ('07-'09/250만불)	계속
미 정	한일 공동협력사업	미정
세 네 갈	Grande Digue Telle 지역 관개 농촌개발 (180만불)	미정
캄 보 디 아	지역개발시범마을 사업 (140만불)	미정
라 오 스	비엔티엔주 5개마을 소득증대 사업 (150만불)	미정

불가능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높고,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어능력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 4. 향후 전망

KOICA의 연도별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은 '91년 약10억에서 '07년 약 15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KOICA 전체적인 정책로드맵(OECD/DAC; 개발원조위

원회 가입)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자금(ODA)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과에 힘입어 각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동 분야에 대한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요청분야도 기존 관개수로, 농촌개발 등 인프라구축 위주사업에서 농산물가공, 소득증대, 농업기술전수, 태양광 에너지 기법 등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걸 맞는 국내의 준비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며, 농업관련기관 및 전문

가와 KOICA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절실하다. 또한 현장조사 및 사업 검토 시 협력분야 + 전문지식을 갖춘 KOICA 자문인력 육성도 거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농업관련분야 연구소, 대학, 엔지니어링 업체, 각종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